

# 출가 감소 '은퇴 출가' 돌파구·사회 문제 적극 개입 시사

불기 2560년을 맞아 조계종이 사회현안에 적극 대처하겠다는 목표 하에 새 중무기조를 발표했다.

## 전문직 은퇴자, 특수출가로 활용

가장 먼저 이번 조계종 신년계획에는 사회 고령화에 맞춰 은퇴 후 수행자의 길을 걷고자 하는 이들에게 일정 자격과 전형을 통해 출가 할 수 있는 은퇴특수출가 제도가 눈길을 끈다. 이는 출가자 감소에 대한 대책이기도 하다. 조계종은 사회 고령화로 노령출가가 대폭 증가하자 1996년 출가 상한연령을 50세로 낮췄고 2002년에는 40세로 추가 하향 조정했다. 하지만 출가자 급감하자 2006년 상한연령을 50세로 환원한 바 있다.

은퇴 특수출가는 기존 50세 이하 출가와 별도로 운영되는 것이 특징이다. 보통의 출가자들은 행자교육원과 기본교육기관을 이수하고 비구·비구니계를 받아 정식 스님이 된다. 하지만 은퇴 특수출가는 이런 교육과정이 간소화된다.

조계종은 특수출가자들의 사회에서의 전문성을 고려해 전문분야에서 소임을 맡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원장 현승 스님은 "전문직종의 은퇴자들에게 새로운 선택과 기회를 제공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교육원은 공청회를 열고 종단 안팎의 목소리를 들은 뒤 11월 중으로 중앙총회에 특별법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교육원 측은 각 사찰의 법회 등에서 출가자 감소에 대응해 출가 홍보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 사찰 보육시설·신재생에너지 도입

이와 함께 사회적 문제인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동참하고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통한 에너지문제 해결 방안도 공개됐다. 도심사찰을 중심으로 보육시설과 입양 시설을 확충하고, 친환경 시스템 구축이 진행된다.

서울 종로와 광화문 업무지구의 중심에 있는 조계사가 현재 수유실을 만들고

## 조계종 2016 신년계획, 무엇을 담았나?

- 사회기여 | 특수출가 도입, 사찰 보육원 설치
- 갈등해소 | 화쟁네트워크, '100년 약속' 선언
- 투명운영 | 회계시스템 보급, 운영위 의무화
- 지역협력 | 교구책임제, 균형발전계획 수립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어린이집도 개설할 계획이다. 서울 불광사 또한 지난해 12월 사찰 혼례식을 대대적으로 여는 등 사찰 결혼문화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 조계종 차원에서 적극적인 정책 집행으로 사찰의 동참을 이끌어 내겠다는 방침이다.

또 조계종은 2016년 상반기 중으로 종단 내 신재생 에너지 도입 실태 파악 및 시설 적합성 검토를 진행하는 한편 산사의 경우 사하마을과 협력하는 생태공동체를 구축한다. 현재 평창 월정사가 경내 태양광 시설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

으며 연간 나무 600여 그루를 심는 것과 같은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 종단 내 친환경에너지 도입으로 탈핵과 환경보존에 대한 목소리 또한 당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먼저 총무원이 위치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과 도심 지역 사찰부터 햇빛발전소를 설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양한 갈등 문제 해결에 앞장 이밖에 현재 종단 내 구성돼있는 노동

위원회를 사회노동위원회로 개편하고 환경위, 인권위, 종교평화위 등 각 기구와 화쟁네트워크를 구축해 노동, 인권, 통일 문제 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또 경색된 남북관계 상황에서 남북불교교류를 통해 분위기 일신에 나선다. 조계종 사회부와 문화부, 민족공동체추진 본부를 축으로 4월 중으로 신개사 전각 공동조사 및 보수가 진행된다. 또 6월에는 북한 불교문화재 보존을 위한 남북불교교류가 진행되며, 2015년 무산됐던 통일기원 8·15 남북불교도합동법회도 재 추진된다.

종단 내 갈등요인인 94년 별빈자 처리를 위한 대중들의 공의도 모을 예정이다. 사부대중위원회가 3월 중 별빈자와 개혁 주체들이 만나는 토론회를 열 계획이며 4월부터 5월까지 94년 종단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짚는 연속세미나도 열린다. 5월 별빈자와 대중이 함께하는 성찰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8월에는 '종단화합과

개혁을 위한 100년의 약속'이 대중공사에 상정되며 이를 통해 9월 경 '100년의 약속'을 선언할 계획이다.

## 사찰 재정 투명화, 중앙·교구 협력 강화

조계종은 사찰예산 편성과 집행의 투명화를 위해 30억원 이상 사찰재정을 공개하고, 2억원 미만 사찰에는 1월 중으로 간소화된 전산회계프로그램을 보급하기로 했다. 또 사찰운영위원회 실효성도 강화하기 위해 미시행 교구 및 사찰의 주지 인사시 반영기로 했다.

이와 함께 5년 째 맞는 승려노후 복지제도의 정착을 위해 교구본사와 협력하는 교구책임제가 적극 도입될 계획이다.

또 중앙과 교구의 균형발전을 위해 6월 중 교구본사 총무원정 사례를 분석하고, 8월 중으로 균형발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10월 중으로는 교구별 재정안 상안도 마련된다. 이 밖에 교구 중심의 사회복지시스템도 구축된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 관음종 올해 예산 47억 5800만원

승려교육·해외포교 강화, 일제 강제징용자 유골 환수도 추진

대한불교관음종(총무원장 흥파스님)은 올 종단 예산을 47억5800만원으로 확정했으며, 해외포교를 강화하고 복지 사업을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또한 승려연수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관음종은 1월 7일 종본산 묘각사에서 종단신년하례 법회 및 제 53차 중앙총회를 열고 종단 예산과 주요 사업을 결의했다.

1백여 종도들이 참석한 신년하례법회에서 총무원장 흥파 스님은 "과거의 마음은 이미 지나간 것이어서 없고, 미래의 마음은 아직 오지 않은 것이니 없고, 현재의 마음은 수시로 바뀌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한 생각 한 마음을 올 뜨겁게 펼치고 정진하여 새해를 맞이 하자"고 당부했다.

이어 오후에 열린 중앙총회에서는 2015년도 결산예산인 44억2600만원을 심의 의결했다.

또한 관음종은 주요 정책사업으로 승려연수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종단의 근간인 중지중풍에 대한 교육을 종단 스님들에게 강화함으로써 종단을 바로 세우자는 취지로 보인다. 이외에도 각 사찰의 중무행정 체계화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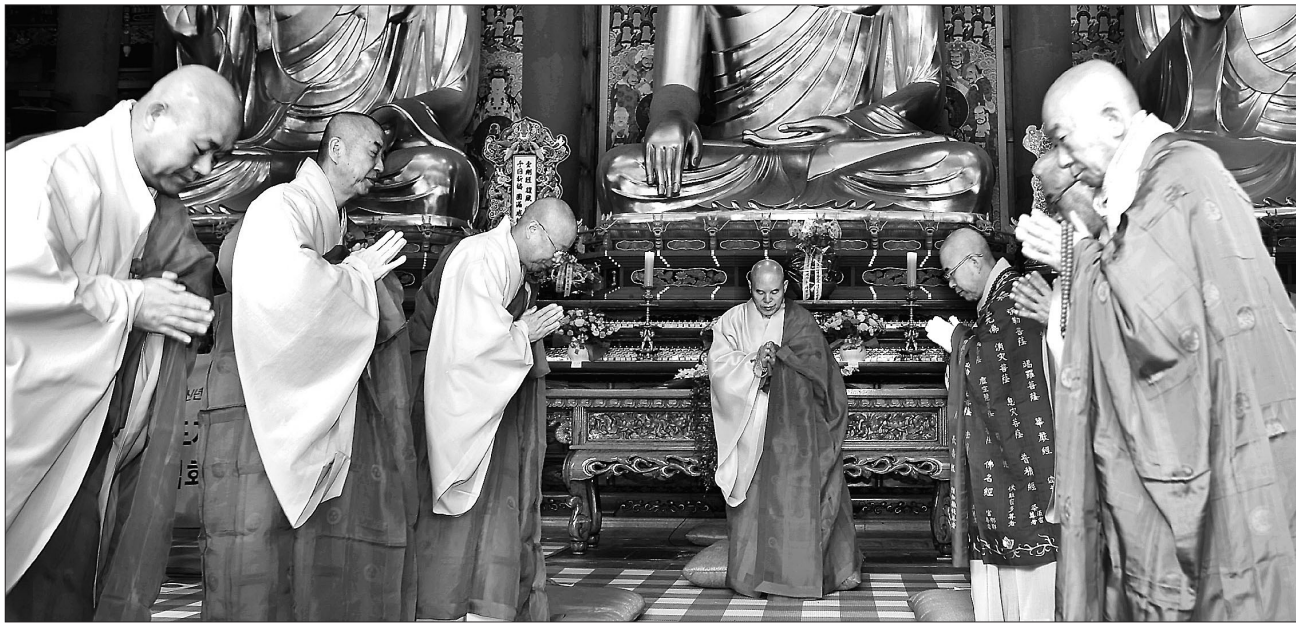
특히 최근 허위 발급으로 문제가 되는 기부금영수증 발급과 관련 종단 소속 스님들이 장부 기재 및 관리 등의 실수로 인해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종단 차원에서 관리 방법을 교육시킬 계획이다.

해외포교 사업 강화도 눈길을 끈다. 지난해 해외포교 원년을 표방하며 라오스 소재 라오코리안 대학과 MOU를 체결한 바 있는 관음종은 자개발 국가의 젊은이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한국불교 문화를 소개하고 관음종을 알리는 행사를 개최하기로 했다.

사회복지법인 관음종복지재단 활성화에도 진력한다. 2014년 8월부터 CMS 후원계좌를 개설해 큰 성과를 거둔 관음종복지재단은 각 사찰서 비정기적으로 이뤄지는 보시 및 자선 행사의 경우 주체는 각 사찰서 진행하고, 재단은 후원단체로 참여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통해 재단 활성화를 독려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자 유골 환수 사업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역술하게 희생된 영령의 고국 귀환을 위해 앞장설 것을 결의했다.

김주일 기자



## "어려움 극복하는 한 해로"

종단협 신년하례법회 봉행

한국불교 대표 종단 지도자들이 2016년 새해를 맞아 사회화합을 기원하는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자승, 이하 종단협)는 1월 12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신년하례법회를 개최했다. 이날 법회에는 종단협 회장 자승 스님(조계종 총무원장), 부회장 춘광 스님(천태종 총무원장), 회장 정사(진각종 총무원장)를 비롯해 김중덕 문광부 장관, 우병우 청불회장, 김중훈·유지영 등 국회 정각회 소속 의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장 자승 스님은 신년 법어를 통해 "1236년에는 국난을 극복하고 국민 통합을 위해 팔만대장경 불사를 시작했다. 2016년 또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역사적인 한해가 되길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 동국대 이사 사퇴 임기 순대로

11일 결의... 이사장 직무대행 성타 스님

동국대 이사 전원 사퇴를 위해 이사·감사 임기가 적게 남은 순서대로 사퇴하기로 했다. 임기가 같은 경우 나이가 적은 사람이 먼저 사퇴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또한 이사장 직무대행에 성타 스님이 만장일치로 선출됐으며, 한만수 교수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요청했다.

학교법인 동국대는 1월 11일 본관 로터스에서 제298회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지난해 12월 3일 동국대 이사회는 임원 사퇴를 결의했으며, 이번 이사회를 통해 전원 사퇴 방식에 대한 원칙을 정했다. 이는 이사 사퇴 시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풀이된다.

실제 동국대 이사 정수는 13명으로 현재 재직이사는 9명이다. 명신, 삼보 스님의 후임은 결정되지 않았고 지홍 스님은 사퇴, 수불 스님은 이사직을 포기해 4명이

결원됐다.

법인 측은 조계종 종립학교관리위원회 이사 추천을 거쳐 추천되면 이사회에서 선출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사 사퇴 시한은 명시 않았다.

이에 대해 법인 관계자는 "이사회회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점차적으로 이사와 감사가 사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사회는 한만수 동국대 교수협의회장과 정창근 교수에 대해 중징계를 요청하기로 최종 결의했다. 중징계는 정직

부터 해임 등이 해당된다. 징계 사유는 동료교수 상해와 합법적 총장 이사장 선출 관련 부정적 의견 확산, 대학에 대한 직접적 비방 등이다.

교원 징계 및 직위 징계위원으로는 일면 스님, 둔관 스님, 김선근 이사가 새로 임명됐으며, 일반 직원 재심위원으로는 호성 스님, 김기유 이사가 위촉됐다.

이밖에도 교원임용과 관련해 미술사학과와 불교사회복지학과 임용은 유보됐으며, △경주병원 불용자산 폐기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 △교육용 기본재산 처분 △경관시행세칙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이 원안대로 처리됐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 2016년도 중국 한의사(중의사) 모집



헤인 스님 한국총장

## 조기유학생 모집

- 초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x.co.kr

## 한국 유학생 중국 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 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 1 특차모집

학과	학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 의 학 과	5년	40명	· 최종학력증명 1부(영문) · 최종성적증명 1부(영문)
석 사 과 정	3년	10명	· 입학신청서 1부
박 사 과 정	3년	10명	· 여권용사진 10매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 경제, 경영, 무역, 식품, 금융 등

### 2 학교소개

- ▶ 세계적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 WTO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 부속병원3, 제약공장, 교육병원12, 제약연구소 등 완비
-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문 기숙사
- ▶ 군입대 연기 가능
-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 학자금 대출가능
- ▶ 서울시에 대학 편입가능
-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 3 지원자격

-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 주지스님 추천자

### 4 원서교부 및 전형방법

- ▶ 전형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
- ※ 모집기간: 2016년 2월 28일까지 수시전형

### 5 문의처

- ☎ 전화: 86-25-84028478, 86-13-585195431
- ☎ 팩스: 86-25-84028479
- ◎ 한국상담 안내처: 불교조계종
- 주소: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논현동 2-14 2층)
- 전화: (02)511-2026~7, (02)511-1080
- 팩스: (02)511-2028
- http://www.njutcm.co.kr
- ※ 입학원서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주 소 : 中國 南京 亞凍 仙林大學城 南京中醫大學

한국 총장 헤인



남경중의약대학 (南京中醫藥大學)

중의대 침 세계 1위 대학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